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년 2길 6번지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음 7월 15일) 제16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박 대통령 새 개각 단행 '역시나'

전북 정치권이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 새 개각이 역시나로 끝났다.

정부는 16일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급을 교체하면서 소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 원장, 환경부장관은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정만기 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경호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현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개각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탕평인사'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현 정부들어 무장관 시대를 이어온지라 이번만큼은 벗어날 것이라 기대가 컸다.

게다가 도 출신 국무총리 배출과 30여년만에 처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 무장관 시대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신뢰감 있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도 순항출신인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의 국무조정실 2차장 배치에서 만족(?)해이 못했다.

이렇듯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민들 반발 차단과 내년 대선을 앞둔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싸늘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실 장관을 발탁하고 중용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적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또 지역균형을 염두에 둔 인사 안배



"맛있게 드십시오" 말복인 16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 서신동 전북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들에게 삼계탕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 도내 정치권의 이정현 '탕평인사' 효과 기대 불구 전북출신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한명' 뿐 일부에선 '도민들 반발 차단용' 이라는 반응도

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려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인사의 큰 테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출신 인사가 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요직에 포진하고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각 개각 때마다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무장관 시대가 길어짐으로써 도내 상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게 문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계에서 도 출신 인사의 장관 내각 기용을 거론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북 소외론과 변방론이 당연한 것으로 굳어질까봐 우려스럽다는데 있다"면서 "최근엔 우스갯소리로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다음 정부에서나 무장관 설움을 벗어날까 모르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속 개각을 하면서 전북 출신 인사의 차관급 기용이었다는 점에서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면서 "언뜻보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 배치가 고심한 흔적으로 여겨지지만 노 재정이 예산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 도내 7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 '전국 최고' 284.1대 1... 20~30대가 최다

올해 전북의 7급 지방공무원 원서 접수 평균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284.5대 1로 전국 최고인 반면 강원은 51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0월 1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선발하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 원서접수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16개 시도 275명 선발에 3만3,54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22대 1로 지난해(125.1대 1)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명 선발에 1,138명이 몰려 284.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249.3대 1), 광주(205.8대 1), 경기(196.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31명 선발에 1,591명이 지원해 51.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제주도는 55.1대 1을 기록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이 159.9대 1이며, 기술직은 19.1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 연령은 20~29세가 54.2%를 차지했으며 30~39세 38.7%, 40~49세 6.4%, 50세 이상 0.7% 등으로 집계됐다. 남성(51.6%) 지원자가 여성(48.4%)보다 많았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가 281명을 모집하는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760명이 지원해 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연구·지도직 경쟁률은

24.8대 1을 기록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10월1일에 함께 치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결과는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시·도별로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11,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고민형 기자

### 전북현대, 오늘 인천유나이티드와 결전

## 27경기 연속 무패 도전

김신욱·이종호 투톱으로 경기 임할 듯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17일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7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시즌 개막 이후 15승 1무 0패로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전북은 2014 시즌 본인들이 세웠던 종전기록인 23경기 연속 무패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 스타야드에서 펼쳐진 포항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26경기 연속 무패기록을 이어간 전북은 리그 11위로 하위권에 위치해있는 인천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다. 상대팀인 인천은 지난달 20일 울산전 3대1 승리 이후 4경기 동안 단 한 경기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북은 곧 있을 AFC 챔피언스리그 8강 상하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100% 전력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호와 이재성 그리고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조성환이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전북은 한교원, 김보경 등 결출한 미드필더 자원들과 최



상의 골 감각을 보이는 공격수들이 여럿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경우 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선발 출장하지 않은 김신욱, 이종호 투톱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드필더진은 경고 누적인 이호와 이재성을 대신해 임종은, 한교원, 김보경을 선발출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전북이 인천을 넘고 27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지 기자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당론 채택 환영"

#### 전주시, 국민의당 결정에

전주시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과 전통신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의당 당론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16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통신장 내의 불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전주시는 논평을 통해 "취업이라는 절박함에 처해 있는 청년들과 지역경제의 허파와 같은 시장을 지키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하고 전통신장 특수성으로 인한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줄 수 있는 희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이번 당론 결정을 "6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두 희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광수(전주 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통신장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도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부안농협 풍작소리

### 부안군 최고 명품 부안쌀 천년의 솜씨

전주매일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고명품 부안쌀 공동브랜드 - <천년의 솜씨>**

◎ 특징

부안군과 부안지역 RPC가 공동으로 계약재배 및 관리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는 계약재배단지를 엄선하고 각종 교육 및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산된 품종의 벼만 수매해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관리지정 시설에서만 생산됩니다.

**부안농협 브랜드쌀 - <풍작소리>**

◎ 특징

서해안 간척지의 비옥한 토양과 천혜의 기후조건에서 생육한 질 좋은 벼만 엄선해 최신 현대식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관리지정 시설에서만 가공하기 때문에 맛있게 매우 우수합니다.

**부안농업협동조합** 구입처 부안농협미곡종합처리장 063) 584-6301